

비교 관점에서 본 여성과 민주화운동

George Katsiaficas

블랙팬더당 중앙위원회 최초의 여성인 캐슬린 클리버 Kathleen Cleaver가 기자로부터 여성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도 나에게 혁명에서 남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는 않는군요!!] 라며 되받았다. 그녀의 항의는 성공적이었다. 실로 혁명적인 조직에서 종종 남성과 여성은 평등에 기초해 존경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매우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1969년 블랙팬더당은 당원의 3분의 2가 여성이었고, 잔인한 경찰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당원들이 살해되어 당 조직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성(그리고 동성애자)의 해방의 공개적인 지지를 주도했다¹⁾.

물론 문제는 가부장제가 사회에 스며들어있어 운동하는 대부분의 혁명가들까지도 망쳐놓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에 살든, 유럽,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살든, 여성들은 체계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차별받으며, 어머니/가정주부와 근로자로서 이중의 일을 해야 하며,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축소되고 남성들의 폭력에 지배받는다. 최근 연구에서 한국의 남편들은 일주일 평균 단지 9.2시간 집안 일을 하는데 비해 아내들은 일주일 평균 72.4시간 동안이나 집에서 일을 한다. 이러한 불균형에 더해, 많은 한국 여성들은 집밖에서 일을 하지만(노동력의 40%) 1998년 일하는 여성들의 95%는 점원, 판매원, 서비스업, 농업, 육체노동과 같은 직업 위계의 낮은 부분에 집중되었다. 1997년 한국 여성들의 수입은 남성들 수입의 겨우 58%였다³⁾. 이러한 통계수치는 단지 일상 생활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널리 퍼져있는 가부장적 권력을 묘사하는 시각에 불과하다.

가부장제는 자본주의보다 앞선 것이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가부장제의 타도는 모든 혁명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페미니스트 혁명은(다른 형태의 억압과 공존하지 않았던) 모든 혁명들 중에서 필연적으로 가장 민주적일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명확하듯이, 여성들은 페미니스트 혁명에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나, 점차 연구들에서 보여주었듯이 남성들에게도 이득을 줄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평균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산다. 남성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노인들을 돌보는 데 공간을 할애 받게 되고, 가족들이나 친밀한 동우회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스트레스 받는 직장이나 다른 권력과 무의 영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다면, 남성들의 삶의 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기대 수명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많은 여성들의 일상 생활양식은 이미 민주적이다.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사회언어 학자인 데보라 테넨(Deborah Tannen)은 일상적인 대화 양식에서 미국의 남성들이 위계질서를 세우는 데 비해 여성들은 수평선상에서 친밀함을 형성하려한다는 결론을 내렸다⁴⁾.

미국과 유럽의 민주화 운동에서 여성들의 역할

민주화운동과 여성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의 일부는 여성들이 종종 이러한 운동들의

주요 지지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부장적 지배 배경 때문에 여성들은 종종 그런 운동 내에서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한다. 1960년 대 초 미국의 인권 운동의 주요조직 중의 하나인 비폭력학생조정 위원회 (Student Nonviolent Coordinating Committee)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반면 자신들은 문서를 타이핑하고 남성들이 카메라 앞에서 연설을 하는 반면 자신들은 기자회견을 위해 보도문을 인쇄한다며 불평했다.

불행한 말이지만, Carmichael(뒤에 Kwame Ture로 알려진)은 한때 혁명에서 유일한 여성의 자리는 그들의 뒤쪽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독일과 미국에서 1960년대 신좌파 주요 학생조직의 남성 지도자들은 초기 여성 해방에 대한 요구를 대단히 적대적으로 여겼다. 매우 공정하게 말하자면, 나는 1960년대 말에 페미니즘이 미국의 모든 주요 운동 조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독일도 곧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덧붙여야만 한다.

미국, 이탈리아, 독일의 민주화 운동에 미친 페미니즘의 광범위한 충격은 주로 여성들이 자신들의 자율적인 조직을 이론과 실천을 위한 권력의 기초로서 발전시킨 덕분이었다. 독립적인 여성 조직은 혁명적 변화를 향한 전체 운동의 실행을 한층 심화시켰다.

이탈리아의 자율적 페미니스트 운동은 개인들이 위로부터 부과되는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들이 자주 관리 (self-management) 일치(consensus)에 따라 작동하는 직접 정치화 (politics of the first person)의 모범을 세웠다. 페미니즘의 자율성 개념은 뒤이은 자율적인 청년 및 노동자 운동의 출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5).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프리카 국회의 여성들은 모든 의사 결정 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전념했고, 민주화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었으며, 민주화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었으며, 여성들의 관심과 지도력에 더욱 민감하도록 만들었다.

아시아의 민주화 운동과 여성

아시아에서 새로운 여성 지도자 세대들이 민주적인 정부와 정당을 이끌기 위해 부상했다. 나는 여기서 미얀마의 아웅산 수키와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를 염두에 두고 있다. 확실히, 여성 지도자들은 민주적인 성향에 제한되지 않는다. 여성들이 남성들만큼이나 위계적이고 독재적이기까지 할 수 있음을 깨닫는 데는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디라 간디, 박근혜와 같은 예들을 돌이켜보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동시대 아시아 여성 지도자들의 의미를 곰씹어볼 때, 이러한 여성들의 성향이 정부 수반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다시 말해 가부장적 유산이 그들의 지도를 가능하게 했던 것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항쟁과 같은 플뿌리 민주 운동으로 돌아가 보면, 여성들은 해방된 도시의 삶과 절대 공동체라고 불려온 것의 중심에 있었다. 1978년 12월 여성들은 송백회를 조직해서 정치 수감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돌봤다. 항쟁이 말발했을 때, 여성들은 민주광장에서 매일 집회를 여는 핵심세력이었다. 여성들은 대자보를 작성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매일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를 도왔다. 몇몇의 여성들은 소총을 운반했으며, 어떤 여성들은 화염병을 만드는 병과 신나를 모으는 일을 맡았다. 어떤 경우에는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였다6). 5월 21일 계엄군이 금남로의 대규모 집회에 발포를 시작한 후, 사람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8시간의 전투 끝에 계엄군을 광주시 밖으로 몰아내는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의 공격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7대의 버스를 타고 나주로 이동했던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소총과 탄약을 획득하여 광주로 가지고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항쟁의 모든 면에서 여성들의 영웅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종종 남성들에게 너무도 종속적이었고, 규범적인, 역할과 행동 양식으로 제한됐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전옥주의 주목할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인군 차량을 타고 다녔던 사람들은 거의 항상 남자였다. 여성들은 주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맡았다. 공동 취사실에서 김밥을 만들고 음식을 보급해주고, 헌혈과 모금한 돈을 관리하거나, 부상자와 사망자들을 돌보아 주었다. 애춘부들조차도 헌혈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느 정도로 광주 교편이 하나가 됐는지를 보여준다. 한 의사가 애춘부들의 헌혈을 막으려 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의 삶은 더럽지만 우리의 피는 순수합니다.] 이전에 그녀는 천하고 더럽게 여겨졌었기에, 다시 태어남을 느꼈다8). 해방된 광주에서의 놀랄 만한 연대는 진실로 자유로운 세상의 맛이였다. 그러나 그러한 교편적 해방 속에서, 여성의 역할은 아직 극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공식적인 지도자 위치에서 여성들은 종종 배제되었다. 저항의 핵심 세력인 시인군이 5월 25일 재조직되는데, 지도급 자리에 한 사람의 여성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두 시위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의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었는데도 말이다. 5월 26일 밤, 계엄군이 압도적인 힘으로 무장해서 광주로 재진입할 준비 태세를 취하는 것이 분명해지자, 남성 지도자들 (윤상원을 포함해서)은 여성과 어린 투사들에게 도청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몇몇 여성들은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최후 결전을 위해 도청 안에 남아 있었다9). 그러나 거의 모든 여성들은 명령에 따라 도청을 빠져나갔다. 여성들에게 도청을 떠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거의 모든 남성들은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군사훈련을 받았지만 여성들은 거의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몇몇 여성들이 해방된 광주의 평화로운 시기동안 총기들을 운반했다라도, 그들은 예외였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무기를 운반했고 여성들의 참여는 비전투적인 역할로 제한되었다. 한국의 군사주의가 사회 전반에 부과한 가부장적 노동 분할의 거울인 것이다.

한국 역사에서 여성 지도자들과 투사들의 예가 풍부하지 않지만 (거의 오로지 남성들에 의해서만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몇몇의 여성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생이었던 논개는 16세기 왜군의 침입에 저항하며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켰다. 배어난 미모를 타고 났고 총관이었던 그녀는 왜군들이 경남 진주에 도착했을 때 일본인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영리하게 왜장을 유혹한 논개는 왜장을 두팔로 껴안고 높은 벼랑에서 강으로 떨어져 죽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의 독립운동 단체의 한 지도자였던 유관순이 4월 2일 그녀의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으로 돌아와 거리에서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대한독립을 외쳤다.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고문으로 죽어서, 시신은 결코 찾을 수 없었다. 남한에서 40년 후에 많은 여성들이 수천 명의 영웅적인 빨치산들과 함께 했고, 이들 중 거의 모든 여성들이 2차 대전 후 한국 전쟁 이전에 미군이 부과했던 분단에 저항하며 죽어갔다.

20세기 한국이 산업화되면서, 여성들은 중요한 공장 노동자들이었다. 1930년대 여성들은 공장 노동자들의 61%를 차지했다.10) 1970년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노동자 가운데 360,000명이 여성 노동자들이었고, 1978년에 이르면 그 수는 1,090,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여성들은 방직, 섬유, 의류 그리고 전자산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노조가 불법이었던 자유무역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일당은 겨우 500원이었다 (당시 1달러는 480원이었음).

남성들의 일당은 여성들의 두 배였다. 평화시장에서, 12세에서 17세 정도의 여자아이들은 공장의 먼지 많고 낡은 다락방에서 하루 16시간, 종종 일주일 7일 내내 일했고, 번 돈을 왕복 교통비에 쓰면 남는 게 없었다.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전태일은 1970년 그들의 절망에 귀기울여 줄 것을 부르짖으며 분신했다. 여성들은 인권과 민주노조의 승리를 위해 동원되었다. (노조가 있는 곳에 노조들은 회사 어용노조거나 황색 조합 yellow union 이었다.) 1970년에는 165차례의 파업이 발생했고, 1974년까지 그 수는 666차례에 달했다.

여성노동자들은 1970년대를 통해 자치적 self-governing 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구성하고 주도했다.

1979년 8월 한국 전역은 주로 어린 4,000명의 여성 노동자가 YH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그들의 연좌 시위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 수백 명의 진압 경찰들은 여성,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공격했다. 한 명의 여성이 죽었고 수십 명 이상이 다쳤다.

결과적으로 김영삼은 의회에서 쫓겨났고 그의 고향 지역에서 부산과 마산의 시위를 주도했다. 데모는 군에 의해 야만적으로 억압 받았다. 이 소요의 결과로,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당했고 전두환 군사쿠데타와 광주항쟁과 학살을 재촉하게 되었다.

또한 YH 사건은 수백 명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자율적인 여성 노동자 조합을 형성하도록 앞장섰다.

1970년대 여성 노동 활동은 몇 가지 방식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 그들은 저항의식과 민중사상을 촉진시켰다. 야권통합에 도움을 주었고, 인권과 민주주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민중경제성은 부분적으로 여성 공장 노동자들의 고통과 그들을 지원했던 수많은 단체들의 단결에 그 뿌리를 둔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의 심장에 있었다.¹²⁾

1980년대의 민주운동을 하나의 새로운 필결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분석가들이 그런 것처럼, 1970년 여성들의 투쟁을 민주운동의 산파로 이해해야만 한다.¹³⁾ 더욱이 한국 여성 노동 운동은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유사한 운동들의 모델이 되었다.¹⁴⁾

1980년대 여성들의 연구가 성장하고 여성 집단이 폭넓게 발전함에 따라, 여성들은 1987년의 승리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군사독재가 전복된 후, 페미니스트 운동은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장했고 그 사회적 영향을 확대했다.

여성의 전형과 민주화 운동

아시아의 전통에는 많은 여성 지도자가 있다. 약 2,000년 전에 중자매(Trung Sisters)는 베트남의 성공적인 반중국 독립운동의 가장 선두에 있었다. 초기 그들이 실패한 후, 중국 한쪽은 다시 결집하여 베트남을 재점령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다.

이 두 자매는 코끼리를 타고 저항 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전투를 명백히 승리로 이끌었을 때, 두 자매는 중국의 정복에 굴복하지 않고 자살을 택했다. 이 베트남의 클레오파트라(만약 내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는 한 세대의 여성에서 다른 세대의 여성에게 토지가 계승되는 전통을 포함한 베트남의 강한 여성 지도자 전통에서 나왔다.

나는 여러분이 내가 베트남의 클레오파트라로 이 두 자매를 언급한 것에 주목하길 바란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이집트를 지배한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우스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 클레오파트라의 생과 자살은 이 종자매와 비슷한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불과 몇십 년 전에 발생했다. 설령 클레오파트라의 일이 시간상으로는 앞서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앞에서 말한 종자매를 베트남의 클레오파트라라 부른 것을 유럽중심주의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는 종종 그리스의 전형이 사용된다. 작년 제2회 5.18 인종항쟁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 발표자가 여성과 민주화를 논의할 때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소포클레스 비극에서, 테베의 폭군 크레온이 안티고네에게 오빠의 시체를 등에 버려 독수리 먹이로 만들도록 명령했을 때 안티고네는 거부했다.

칼 막스가 지적했듯이, 그리스 문명은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비록 이 그리스의 전형이 반드시 실제 인물로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문화의 본질적인 부분을 드러낸다. 그들은 특정한 문화와 유사한 행동 양식을 구현하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고 대대로 전해져 왔다. 나의 견해로는 한국 문화에도 그리스 신화의 인물인 안티고네와 엘렉트라와 같이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면이 있다. 우리는 현재 광주에서 제3회 5.18 인종항쟁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모든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신화적인 여성 성추항의 의의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전설에 의하면 춘향은 변사도의 숙청을 거절하였다. 변사도는 왕이 전라도의 사모로 새로 임명하였는데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올리고 그 지방 부녀자들의 숙청을 요구했다. 춘향은 줄곧 전 사모의 아들인 이몽룡에게 충절을 보였고, 춘향이 이몽룡에게만 충절하겠다는 욕망(가부장적 일부일체제의 각색) 때문에 변사도의 숙청을 거부하였다. 그녀의 완강한 반항 때문에, 변사도는 춘향에게 계속 매질을 가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변사도의 생일 잔치에서 춘향은 처형될 참이었지만, 이몽룡이 은밀히 전라도에 돌아왔다. 이몽룡은 변사도가 그의 연인인 춘향을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고 분노하여, 판관을 조직하여 그를 축출하고, 전라도는 평온을 되찾았다. 이 춘향 이야기는 전라도의 순결을 대표하며, 또한 이 지역의 독특한 판소리 중 가장 널리 공연된다.

춘향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춘향이 한국 조선시대 남성에 대한 여인들의 순종을 대표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춘향은 가장 반페미니스트적인 사례가 된다. 조선시대에 한 동안 가부장적 일부일체제는 남자가 부인 외에 첩을 들일 수 있게 바뀌었다 (설령 첩의 자식의 지위는 낮았지만). 이상적인 아내는 정절을 지키고 남편과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다. 여성의 지적 능력은 너무 낮게 평가되어서 (종종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서) 거의 글을 배우지 못했다. (사실 1930년까지도 92%의 여성들이 문맹이었다.)

춘향은 신분이 천한 첩의 자식이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연인은 양반 출신어어서, 극심한 계급 격차가 플롯에 드러난다. 춘향의 모친은 결혼하지 않은 기생이었고, 이몽룡의 아버지는 권세 있는 양반이었으니, 그들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 비록 이몽룡은 춘향을 사랑했으나 한양에서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양반집 여식과 결혼했다. 때문에 춘향 이야기는 부유한(남자)자는 신나게 즐기고 가난

한(여자) 자는 뒤에 남아있는 부자의 자유를 낭송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춘향의 연인은 자유롭게 그녀를 뒤로 하고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고, 반면 춘향은 혼자 줄곧 이몽룡에게 충절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춘향 이야기는 보수적인 내용이지만, 나에게서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보인다.

춘향의 불공정한 권위에 대한 항쟁은 그 이유가 얼마나 보수적이든 간에,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권리를 긍정하는 하나의 예이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전]에서 그녀의 완강한 거부와 희생은 자기 결정에 대한 더 큰 요구를 촉진시키도록 한다.

지역 항쟁은 이몽룡의 지도하의 관군 반란과 합쳐졌고, 춘향이 석방되고 회복된 후 왕은 수년간 지속되었던 이 지방의 세금 면제를 공포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춘향은 민주적인 역할의 모델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녀의 반항행위가 정부의 관원과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춘향은 자신의 남자를 얻었을 뿐 아니라, 비록 첩의 신문일지라도, 더욱 중요하게 춘향이 외부 권위가 생활세계에 진입하려 했을 때 공동체 생활방식에 대한 선택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1980년에 발생한 항쟁에 참가한 여성 활동가를 현대의 춘향으로 여길 수 있을까? 광주가 해방된 동안에도 여성의 역할은 중속되었고, 그럼에도 이러한 여성들은 불공정한 중앙정권을 받아들이기를 끝끝내 거부했다. (전두환 쿠데타와 군인의 잔혹성은 종종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형태였다.)

그들은 안전에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라도에서 공동체적 생활방식을 지켰다. 이몽룡이 변사또를 축출하고 춘향을 보호한 것처럼, 윤상원과 시민군은 계엄군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성들이 도청을 떠나게 했다.

한국 사회운동의 미래에 대한 고찰

해방적인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데 있어 전통적인 문화 형태가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일까 아니면 장애물일까? 아마 둘 다 일 것이다. 광주의 공동체주의는 이곳에서 일상적인 삶의 단면으로 내게는 너무 친근한데, 풍부한 일상 경험의 차원으로 집단 행동을 동원하는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개인의 해방 (단지 한 예로서 성적 해방 같은)을 가로막는 사회적 초자아 Super Ego이며 종종 좀더 젊은 사람들과 여성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사회적 공간을 창조할 수도 있다. 서구 대부분의 지역에서처럼 미국에서 집단 행동은 발전된 사회적 원자화에 의해 저지되고 뿌리깊은 경쟁, 개인주의 그리고 남성이기주의의 형태에 의해 방해받는다. 반대로, 한국의 공동체주의는 위계적이고 때로는 권위적이지만 집단행동을 촉진시킨다.

만일 우리가 유럽과 미국의 사회 운동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형태들이 한국 사회 운동이 자신을 위해 비축해둘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된다면 나는 확실히 두 가지를 이야기 할 수 있겠다.

1. 문화의 전통적인 형식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
2. 자율적인 여성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결된 운동의 분열로 보이는 '정체성의 정치 politics of identity'와 '새로운 사회운동'이 이미 발생하여 나타난다. 이 분화와 전문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의 동일한 역동성을 반영하면서 더 깊은 연구와 이론화를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나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통찰을 언급하고자 한다. 분열된 새로운 사회운동의 부상으로 상실되었다고 여겨졌던 보편적 이해는 실제로 정체성 운동의 특이성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여성운동은 처음엔 단지 사회 절반의 이해에 기반하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억압적인 가부장적 관계들로부터 모든 인간을 해방하는 전망이 들어있다.

일상생활의 탈식민화와 민주화는 복잡한 과정이다. 내 경험에서 보면, 나는 서구에서 명확히 의심할 바 없는 일상 생활 양식의 뚜렷한 정치화 경향을 주목했었다.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과잉인구가 지구의 생존에 위협을 준다는 확신 때문에 절대 아이들을 갖지 않는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많은 이런 남성들은 정관 절제 수술을 한다. 왜냐하면 피임이 단지 여성만의 문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여성들이 가부장제의 간교한 특성 때문에 의식적으로 남성들과 더 이상 성적 관계를 택하지 않았다. 대신 여성들은 공공연하게 레즈비언과 게이 관계를 옹호한다.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이 운동은 동성연애와 레즈비언들의 필요에 의해 이끌어지고 거기에 맞춰진다. 필리핀에서는 이미 레즈비언들이 운동에서 공개적으로 기탄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는 의식적인 일상생활 양식의 개조(문화혁명)와 정부 및 경제의 억압 구조 근절(전통적으로 혁명의 각축장이라고 간주된)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을 크게 유념해야 한다.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지, 민주주의를 위한 전지구적 전투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함에 따라, 여성들이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각주

* 5.18인종항쟁 제22주년 기념, 제3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학술대회(2002. 5. 15-17)의 기조발표문. 내게 격려와 도움을 준 진주, 신은정, 계갈춘기, 양정심, 캐서린 클리머 Kathleen Cleaver, 최정기, 김권호 그리고 전남대 5.18연구소 나간채 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George Katsiaficas

미국 보스턴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사회학과 교수

- 1) 블랙 팬더 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Kathleen Cleaver and George Katsiaficas(eds.), Liberation, Imagination and the Black Panther Party(New York:Routledge, 2001)를 보라.
- 2) Asian Women, Spring 1997, Vol 4, p.240 인용
- 3) Kim Mun-cho, "Inform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Women's Social Status in Korea", Asian Women, December, 1998, Vol.7, p.141을 보라
- 4) 그녀의 통찰력 있는 저서 You Just Don't Understand: Men and Women in Conversation 을 보라.

- 5) 나의 책 *The Subversion of Politics: European Autonomous Social Movements and the Decolonization of Everyday Life* 윤수종 옮김, *정치와 전복: 1968년 이후의 자율적 사회운동* (이후, 2000)을 보라
- 6) 오경민, 정향자, 이춘희, 정현애와의 인터뷰. 정현애의 인터뷰는 통기의 이러한 차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 7) 전남대 5.18연구소 상임연구원 강현아 박사와의 논의는 이 쟁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 8) 익명의 참여자와의 인터뷰 (2001년 11월 7일)
- 9) 2001년 10월 28일의 인터뷰에서 정현애는 도청이 탈환된 27일 이후 상무대 영창에서 당시 도청에 남아있던 10명의 여성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 10) Chung Hyun-back, "Together and Separately: The New Women's Movement After the 1980s in South Korea", *Asian Women*, Fall 1997, Vol.5, p.21.
- 11) 한국노동의 통계자료.
- 12) Miriam Ching Yoon Louie, "Minjung Feminism: Korean Women's Movement for Gender and Class Liberat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8(4):1995, pp.417-430.
- 13) Nam Jeong-Lim, "Women's Labor Movement, State Suppression,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i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8, No.1, 2002, pp.71-95를 보라.
- 14) Chung, *op.cit.*, p.24.
- 15) Chung, *op.cit.*, p.21.
- 16) for further discussion of the universal interests of the species, see the last chapter of *The Subversion of Politics*.